

야생의 농사(하)

| 김영 |

혼생과 혼혈, 혼종 등 다양한 종이 섞여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김영 선생이 잡초와 함께 하는 농사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

재의 제병 효과

나무로 불을 때는 아궁이로부터 부드러운 재를 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나무를 태워 새하얀 재를 마련합니다. 그것을 삼베자루에 넣고 입구를 단단하게 묶은 다음, 이슬이 많이 내린 이른 아침에 이슬방울을 잔뜩 뒤집어쓴 배추 잎사귀 위에서 몽둥이로 툭툭 쳐줍니다. 그러면 삼베 울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재의 분말이 새어나와, 배춧잎에 흠뻑 묻어있는 이슬방울에 내려앉게 되는데 배춧잎이 하얗게 될 정도로 듬뿍 내려앉게 하면 다양한 병해충들이나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이 원만할 수 없어 배추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학적 양질의 성분들이 배춧잎의 성질을 연하게 해 먹는 맛 또한 월등하게 더 근사하답니다.

사실 세제가 없었던 예전에는 빨래를 할 때 양재물 대용으로 재를 사용했었을 정도로 재 속엔 꽤나 독한 성분이 들어있어 살충효과가 대단할 수도 있는데다 거름효과도 만만치 않아 부추 밭에 뿌려두면 부추가 굉장히 잘 자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탄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쓸 만합니다. 보드랍게 빻은 다음 체로 쳐서 미세한 가루만 삼베자루에 넣어 사용하면 방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시비효과도 근사하답니다.

감자껍질에 의해 구더기들이 몰살할 정도라면 방제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변통에 감자껍질을 저녁에 넣어두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변통 속의 구더기들이 몰살될 정도이니, 감자껍질을 분말이나 액상으로 만들어 병변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 싶은

곳에 잘만 응용한다면 방제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인분이나 오줌, 닭똥, 개천가에 서식하는 고추풀이나 한약재인 초오의 줄기와 잎, 부자의 줄기와 잎들도 응용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갓에 의한 방충효과

언제인가 김장무가 자라는 것을 살피던 중 씨앗으로부터 발아되어 세 잎 정도 더 생겨나왔을 정도로 자란 무 줄기의 밑동이 푹 잘려져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몇 포기 발견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낭패다 싶어 서둘러 무 주변의 땅속을 파자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길이가 2.5cm는 됴직한 벌레가 있었습니다. 순간 꽤씸하다는 생각이 앞서 ‘요놈을 그냥’ 하는 순간, 이놈도 살고자 한 짓인데다 이놈 역시 살아야 나의 생 또한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실망하려는 찰라 ‘무 주변에 갓 씨앗을 심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랑도 없는 무 주변에 씨앗을 뿌린 다음 씨앗이 덮일 정도만큼 흙을 뿌려 묻고, 다음날 살펴보니 밑동이 잘린 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 고깃 참 씨앗만 뿌렸을 뿐인데?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다음 날들에도 잘려진 무는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놈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무와 갓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돕는 듯 잎들이 흐드러지게 잘 자랐으며 무잎을 갈아먹는 흰 나방 애벌레에 의한 폐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무와 갓을 한데 뒤섞어 심는 세월이 15년여, 그런 폐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낸다면 갓 싹을 먹을 때 경우에 따라 콧속을 톡 쏘는 매콤한 자극에 의해 순간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독한 그것의 향을 생각하고 활용했던 것이었죠. 씨앗만 뿌렸는데도 그 같은 효과가 가능한 경우는 파동학을 참고하면 이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기성 공생이 가능한 종류들끼리 한데 섞어 혼생이 가능하게 할 경우 서로 다른 향기의 파동성과 분비물 내지는 배설물에 의해 해충을 잡아먹는 다양한 곤충들의 서식이 유도될 수 있어 병변현상을 일으키는 미생물들과 그것들을 잡아먹는 천적인 미생물들의 비율이 원만하게 갖춰질 수 있어 방충방제효과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이 많이 내린 아침에 고추밭을 살펴보면 작디작은 이슬방울들이 조롱조롱 잔뜩 매달린 새하얀 거미줄들을 볼 수 있는데, 잡초가 많이 섞여있는 고추밭은 밭 전체가 온통 하얗 정도로 거미줄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반면에 제초제를 살포했다거나 비닐멀칭을 해서 잡초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추밭에는 거미줄이 일부러 찾아야 겨우 하나 볼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거미의 먹이는 식물이 아닌 곤충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친환경유기농산물은 곧 유기적인 연대가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농산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풀 한포기 없는 환경에서 같은 종류들끼리만 성장한 농산물을 유기질을 먹고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이라고 하기엔 웬지 석연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과 함께 더불어 공생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한 먹을거리라면 친환경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혼종에 의한 성장성

무와 배추 갓이 따로따로 심겨진 것보다 한데 섞여 심겨진 경우가 훨씬 잘 성장하는데다 병으로 인한 폐해도 훨씬 덜했었는바, 이는 각기 다른 냄새라든가 배설물 내지는 분비물들에 포함된 다양한 에너지에 의해 공기에 분포된 다양한 미생물들과 기체, 액체들 또는 토양 속이나 표면에 포함, 분포된 다양한 미세 사물들의 이동성이 서로의 성장성을 돕는 경위로 유도되어 간섭하는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예컨대 벧짚의 에 지성에 의해 효모의 발효를 돕는 미생물이나 공간에 분포된 다양한 액기체 등이 삶은 콩으로 유도되어 청국장이 숙성되는 경위처럼 말입니다.

무, 배추, 갓을 따로따로 담은 김치보다 한데 섞여 담은 김치가 훨씬 맛있는 경우도 각각에 영글어져 있는 각기 다른 성분들이 한데 뒤섞여 발효되는 데서 비롯된 조화에 의한 맛이라는 점도 이들의 연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같은 거름을 섭취했어도, 섭취한 실체에 필요 없어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설되었을 성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다른 실체에는 필수한 성분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의 배설물이 소똥벌레의 생에 최적의 식량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성에 의해 한데 섞여 성장할 경우 서로의 성장성에 맞는 성분들에 연을 서로 이어지도록 돕는 간섭효과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를 배려하는 연이 절로 잘 이어

지는 남녀가 천생연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밭상에서의 혼식이 몸에 더 좋은 것처럼 농작물들도 궁합이 맞는 종류들끼리 섞여 성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감히 제시하는바, 이른바 궁합이 맞는 것끼리 일일이 가려서 심는 것도 좋겠으나 그보다는 인간의 간섭 없이 야생에서처럼 다양한 종류들이 절로 뒤섞여져서 궁합이 맞는 종류들끼리의 연이 저들 스스로에 의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없지 않습니다만 생태현상성은 대체적으로 되는 경위로 지향하는 경향이니까 굳이 가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버려둬.’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내버려 두면 알아서 기거든요. 짐승들의 싸움질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 높은 알아서 도망침으로써 해결되는 게 사실이며, 사람들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간섭하면 더 극성이죠. 내버려두면 알아서 기는 게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걸 못하는 게 인간적인 병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밤 뇌라, 대추 뇌라 하게 되는 초로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의 누적累積만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현상성임을 항상 명심하는 바입니다.

상기와 같은 방편들을 활용하면서 채소농사를 짓자니까 해충들에 의한 폐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었지만 김장 김치를 담그지 못할 정도로 김장농사를 망친 해 또한 한번도 없었으니까 사용한 방편들이 다소 쓸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구마 농사

고구마 모종은 줄기를 잘라서 심으니까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흙

속에 묻히는 터라 묻힌 부위의 땅 기온이 차다거나 수분이 부족할 시엔 묻힌 부위에서 뿌리가 제대로 발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짚을 깔아 뿌리의 발아에 필요한 온기와 수분의 보존이 가능해진다면 뿌리들이 제대로 잘 발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마는 뿌리에서 형성되는지라 뿌리부터 제대로 잘 발아되어야 고구마 농사가 무난하게 잘 지어질 수 있는 터라 고구마 밭에서 증발하는 수분과 방출되는 지열의 억제가 가능한 잡초줄기들을 깔아 덮는 기법은 더없이 근사한 방편일 것입니다.

고구마 모종을 심는 적기라 할 수 있는 5월 하순경은 모심기를 비롯한 다양한 농사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이니까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모종을 심을 두렁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자마자 높이 30cm, 넓이는 두렁마루 정점으로부터 양쪽의 가장자리까지 각각 50cm, 두렁들 간의 거리는 양쪽 두렁의 중앙정점으로부터 정점까지 100cm가 되도록 하고, 모종과 모종 사이의 거리를 35cm에서 40cm로 계산해 300여 포기를 심을 수 있을 만큼 만들었습니다.

5월 20일 경에 이르자 두렁마다 각종 잡초들이 잔뜩 자랐기에 고구마 모종을 심고자 잡초들을 모두 낮으로 베어 고구마밭 표면에 두둑하게 깔아 덮었습니다. 그리고도 양이 다소 모자라 이웃농토에서 뽑아버린 것들을 주워오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베어 옮겨다 덮기도 했습니다.

고구마 모종이 심겨질 흠을 줄기의 잘려진 부위가 묻힐 곳엔 깊이 6cm 정도, 이곳으로부터 10~13cm 가량의 길이를 경사진 구덩이가 되도록 호미로 흠을 파낸 다음 가식해 두었던 고구마 모종의 잘라진 부위를 가장 깊은 흠에 넣고 경사면을 따라 줄기를 엇비슷하게 눕힌 다음 물을 듬뿍 넣으며 흠으로 묻은 후, 흠을 파느라 걷어놓은 잡초짚들

원시적인 것이 가장 자연적인 것이므로,
원시적으로 살아야 자연적인 삶이 가능하고
자연적인 삶일 때 온전한 생존이 가능하다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관성대로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 생산력이 왕성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을 다시 잘 정리해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잡초를 덮은 곳과 아닌 곳의 차이를 알고자 20여 포기가 심겨진 두렁에는 잡초짚을 하나도 덮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잡초짚이 깔린 곳의 모종들은 모두 싱싱하게 잘 살아나는 편인 반면에 깔리지 않은 곳의 모종들은 낮이면 시들고 밤이면 살아나기를 거듭하다 결국 4포기 정도 말라 죽었습니다. 잡초 또한 짚이 깔린 곳보다 아닌 곳이 훨씬 많이 자랐었으며, 줄기들이 뻗으면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잡초가 깔린 곳은 거의 없는 반면에 아닌 곳은 심했었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50cm 정도 자랐을 무렵 줄기로부터 반경 15cm 내에서 자라는 어린 잡초들을 모두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를테면 북을 준 셈인데,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북을 주는 게 거름을 주는 효과 못지 다기에 수일 후 한 번 더 북을 주었는데, 시비를 하는 효과, 줄기 바로 옆에서 자라는 어린잡초를 잡는 효과,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른바 북을 준 경우의 효과가 거름을 준 경우와 같을 수 있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북을 주는 흙은 모두 토양의 표면을 긁어모은 것인데, 토양의 표면은 공기 중에 노출되었으니까 공기에 포함되었을 산소나 질소를 비롯한 다양한 원소들 내지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과 햇빛들의 간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양속의 흙보다 그것들의 간섭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다양한 유기질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수 있고 그 같은

흙을 모아서 북을 주니까 거름을 준 효과 못지않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줄기에서 나온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심하면 수확량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기에 깊이가 깔리지 않아 땅속으로 뿌리를 심하게 내린 줄기들을 일일이 들춰 뒤집었는바,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습니다. 현대 깊이가 깔린 곳은 그 깊이가 다 썩기 전까지는 그 위로 뽑는 줄기가 흙에 닿을 수 없어 땅속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줄기를 들춰주는 수고와 시간까지 덜 드는 편이어서 썩 먹고 알 먹는 셈이지요.

고구마 줄기가 1m 정도 자랐을 무렵부터 고구마 밭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물론이고 다른 곳으로부터도 잡초들을 잔뜩 베어다 줄기들 사이에 깔기를 2회 정도, 10월 중순경 고구마를 캐었는바 깊이가 깔리지 않은 곳보다 깔린 곳에서 수확되는 양이 3배나 더 넘었습니다.

바로 옆 5m 근방에 있는 이곳이 고향이면서 수십 년을 농사만 지은 전문농사꾼의 고구마 밭에서 수확되는 양보다 2배가 넘게 차이가 났으며, 300여 포기를 심어 15kg짜리 박스로 25박스가 조금 넘는 양을 캐었으니 포기당 1.3kg 가량을 수확한 셈인데, 2012년에는 200포기를 심어 20kg들이 20여 박스를 캐서 포기당 2kg 정도 수확되었으며, 한 포기에서 가장 많이 수확되었던 양이 무게로 무려 5.5kg 넘게 나왔으니 이른바 잡초를 모두 뽑아 없애거나 비닐멀칭을 해 잡초가 아예 자라지도 못하게 한 농사에 못지않은 양을 수확한 셈이지요.

여기에 자연적인 시비의 기법이 묻어 있죠. 이른바 사람이 농토에 퇴비를 시비하는 방법은 고랑을 판 다음 고랑 속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덮은 후 씨앗과 모종을 심은 다음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지는 시비는 땅속이 아닌 토양의 표면에 낙

엽이 떨어진다거나 초목들의 사체가 땅의 표면에서 썩어 분해되어 초목들의 먹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목들의 잔뿌리들은 모두 양분을 흡수하고자 지면의 표토에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곳의 토양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느다란 실뿌리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겹겹이 겹쳐지는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 밭의 표면을 잡초 짚으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아 덮어놓은 경우가 바로 숲에서의 시비와 동일할 수 있어 이처럼 많은 양의 고구마가 생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곡식의 잔뿌리들이 분포된 상황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지면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표토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이는 원시적으로 타고난 분포학적 본능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농작물도 원시적인 생물성이니까 원시적인 자연성대로 성장할 것이므로 타고난 본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일 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시적인 것이 가장 자연적인 것이므로, 원시적으로 살아야 자연적인 삶이 가능하고 자연적인 삶일 때 온전한 생존이 가능하다할 수 있 으니까 타고난 관성대로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 생산력이 왕성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땅속에 시비를 하는 것 보다 지면에 시비하는 게 원시적일 수 있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바입니다.

2006년, 덕소에 있는 모 대학농장에서 상기와 같은 기법으로 고구마농사를 지었었는데, 수확철을 맞아 교수님들과 함께 고구마를 캐는데 1.5kg이 넘는 포기가 많았었으며, 일을 돕던 주변의 농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쩌면 이렇게 잘되었을까” 했었을 정도입니다. 흡족한 표

정이 만연한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기쁨이 바로 농사짓는 맛이 아닐까?”

한편 2010년, 심어놓은 고구마 모종들 중 시름시름 죽어가는 게 많아 경위를 살폈으나 이유가 모호해 흙속에 묻힌 줄기 부위의 흙을 조금씩 걷어내 봤습니다. 흙에 묻혔었던 줄기 부위가 많이 상했었는데 원인을 알고자 두력의 표면에 덮인 잡초 짚의 덮인 상태까지를 면밀히 살핀 결과, 두력에 깔아 덮은 잡초 짚들 중 고구마줄기에 닿은 싱싱한 생 짚들이 상하면서 생 짚이 닿은 줄기부위도 동시에 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렇게 탈색된 짚들이 닿은 고구마 모종들은 무사한 편이 있었는데 녹색이 싱싱한 생 짚들이 닿은 줄기들은 대부분 제대로 살아 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고추줄기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비료나 닭똥으로 만든 거름을 놓아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다가 죽는 예가 대부분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비료나 닭똥거름에 함유되었을 질소질의 유독성 때문이지 않을까요? 상하는 생 짚에 닿은 상태로 죽어버린 고구마줄기의 상태와 질소질 비료에 의해 죽은 고추줄기의 상태가 거의 유사하니 말입니다. 혹여 그게 사실이라면, 녹색이 싱싱한 생 짚에 질소질이 다량 함유되었음이 실제로 보여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고구마줄기에 잡초 짚이 닿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깔아 덮는바, 덕분에 희생되는 예가 거의 없는 고구마농사를 짓게 되었죠. 매사에 어디든 항상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옥수수 농사

옥수수 씨앗을 심을 두력의 높이나 넓이는 고구마 밭의 경우와 거의 같게 만들었습니다. 다소 넓은 편이지만 이 정도로 넓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좁은 경우들보다 적지가 않았었기에 굳이 좁게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며, 좁을수록 일하기만 더 불편한 점도 만만치 않거든요. 낮으로 잡초를 잘라서 옥수수들 사이에 놓으려면 팔이나 몸의 활동영역이 넓을수록 작업능률이 더 높을 수 있고 좁으면 활동하는 것부터가 원활할 수 없으니까요. 해서 두력들 간의 사이를 10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는 거리는 1알씩 심을 경우엔 20~25cm, 2알씩 심으면 30~35cm 정도면 적당하며, 더 넓은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더 좁았을 경우는 옥수수줄기들 사이에 잡초줄기를 갈아 덮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수확량도 더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니까요.

씨앗으로부터 발아된 옥수수 싹이 15cm 정도 자랐을 무렵 옥수수 싹으로부터 반경 15cm 내에서 자라는 어린 잡초들을 고구마의 경우처럼 흙으로 모두 덮어버리는 부토 즉 북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잡초에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었는바, 농작물 줄기 바로 옆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뿌리가 튼실해지기 전에 없애버리는 편이 작물의 성장에 좋습니다.

북을 준 곳 이외의 주변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30~40cm 정도 자랐을 무렵 낮으로 잘라서 옥수수줄기 사이와 두력의 양쪽 표면에 갈아 덮기를 한차례 그리고 2차례 정도 더 하면



잡초관리는 얼추 끝나는데, 옥수수줄기의 표면에 생 썩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풋옥수수는 심은 날부터 80~90여일이면 삶아 먹을 수 있으나 4월 초에 심은 경우는 기온이 차가운 기간이 다소 길어 옥수수 싹의 발아가 늦기 때문에 100여 일이 넘어야 풋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기가 5월 중순 이후에 심은 것보다 다소 늦는 편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더 빠를 수도, 더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월초에 옥수수씨앗을 심어 서리가 서리는 10월 하순에 삶은 풋옥수수의 맛을 즐겼었으니까 4월초부터 7월초까지 심은 옥수수들은 수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할 수 있습니다.

풋옥수수를 맛나게 삶는 방법 중,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시장거리에서 파는 것처럼 물에 푸욱 잠긴 상태로 삶는 것보다 옥수수가 다 삶아지면 솥 안에 물이 없어 솥바닥에 닿은 옥수수의 면이 누렇지처럼 약간 늘을 정도로 물의 양을 알맞게 잘 맞춘다거나 삶을 옥수수를 솥에 담은 양도 솥 안의 2/3정도 채우고 1/3정도는 빈 상태로 삶았던 경우가 솥 안 가득하게 채웠던 경우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또한 솥바닥에 먼저 옥수수줄기와 잎을 한 겹 깔 다음 옥수수를 담고 그 위에 줄기와 잎을 다시 한 겹 더 얹어서 삶은 것이 아닌 경우보다 더 맛있었는데 열을 가하는 방법도 센 불로 30분 정도, 약한 불로 15분 정도를 연출하면서 삶는 것이 좋았습니다. 좀 더 맛있게 삶는 방법도 있을 것인바, 아무튼 여러모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농작물

고추밭의 잡초관리도 옥수수 밭처럼 실시합니다. 콩이나 들깨, 강낭콩, 팥, 녹두처럼 줄기의 상체에 가지가 많으면서 잎의 폭이 넓은 편인 종류는 잡초를 관리하기가 다소 쉬운 편입니다. 심고 가꾸는 기법 역시 옥수수의 경우와 거의 같게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면적을 시도하기보다는 수십여 평으로 실험적인 실습부터 충분히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농사일에 잔뼈가 굵어도 자칫하면 쉽고 빠르다는 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연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실전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실험과 연구를 겸한 연습을 거듭하노라면 더 근사한 요령들이 착안될 수도 있을 것인데, 주의할 점은 토끼풀이나 잔디처럼 키가 낮으면서 촘촘하게 밀집되어 성장하는 종류와 바랭이처럼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는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토끼풀은 밀집된 잎과 줄기만큼이나 뿌리 또한 촘촘하고, 잎과 줄기들이 차지한 범위만큼이나 뿌리다발의 크기와 범위도 비슷하여 거름을 흡입하는 식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는가하면 처리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잡초의 서식을 배려함으로?

잡초를 없애지 않는 농사, 잡초의 성장을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 경위로 유도하는 개념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이자, 그러한 야생의 농사가 농토나 농작물, 인체 등에 유익하다 할 수 있는 점들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 토양으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열의 보호가 가능해 작물에게 있을 가뭄과 냉해의 예방이 다소 가능한데다 지렁이, 굼벵이, 땅강아지들의 서식이 유도될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미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도 있는가하면 다양한 필수기체들의 유출이 다소 억제될 수도 있다.
- 잡초줄기들이 썩으면 토양에 제공할 거름이 된다.
- 토양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물성을 띤다.
- 토양의 먹이는 생물체의 사체다(신토불이).
- 토양의 비중과 그것의 보존을 도와 토양이 비옥해질 수 있다.
- 시비에 따른 비용과 노동력, 시간의 절감이 가능하다.
- 토양은 원칙적으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 깎아 덮은 잡초줄기에 의해 직사광선의 차단이 가능하다.
- 토양과 농작물이 가뭄을 덜 탈 수도 있다.
- 식목할 때 활용하면 나무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는 농작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 낙엽이 많이 쌓인 숲에서 초목의 생장이 더 왕성하다.
- 비료가 없었던 시대의 거름은 모두 식물을 썩힌 퇴비였다.
- 수분이 풍부한 식물의 줄기와 잎에는 질소질이 많은데 이는 천연질소질이므로 인체에 해롭지 않을 수도 있으며, 농작물에게는 더없이 좋은 양질의 질소질일 수 있으므로 농작물 주변 토양의 표면에 잡초줄기를 많이 깔아놓는 것은 곧 양질의 질소질을 충분히 시비하는 셈이 되는지라 활용할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깔아 덮을 시에는 탄소의 비가 높음에 따른 화를 면할 수 없다.
- 다양한 식물의 냄새에 의해 익충과 해충의 비가 갖춰질 수 있다.

- 편식偏植에선 편중, 혼종혼식混植에선 다양한 성분들이 혼입될 수 있다.
- 편식농사보다 훨씬 더 진부한 맛과 질이 깃들 수도 있다.
- 맛과 향이 질을 반영한다.
- 야생 도라지의 약효를 경험한 천식환자들은 야생도라지만 찾는다.
- 제초제와 살충제를 구입하는 비용과 노동력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 거름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 연작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효과와 참고할 점들이 있으며, 혼식이 몸에 좋은 것이 사실이라면 아예 논밭에서부터 다양한 잡초들과 한데 뒤섞여 심어 혼식되어 성장한 먹을거리가 심신의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원칙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하며, 복잡할수록 더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야생으로부터 배웠는바, 궁합이 맞는 것끼리 구별하고 그것들끼리만 한데 심어 가꾸며 보살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렇다고 말하면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생의 경우처럼 농작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잡초를 한데 뒤섞이게 하면 저들 스스로 알아서 유기성의 연결이 가능한 종류들끼리의 연줄이 절로 이어져 함께 더불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니까 그냥 섞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혼혈인이 순혈인보다 모든 면들에서 월등하게 더 뛰어나다는 것, 확실하잖습니까? 다양한 혈족과 접족의 기회가 잦아지면서 서로 이끌리는 타 혈족들과의 인연의 연줄이

자연스럽게 이어짐에 따라 혼혈아가 태어난 거죠. 이는 개별적인 이끌림일 수도 있겠으나 더 넓게 확대해석하면 전체성적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고자 떠나면 타국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의도가 아닌 전체성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드라마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합니다!

아무튼 혼식이 몸에 더 좋다는 점, 혼혈인이 더 뛰어나다는 점, 다양한 식물이 한데 혼재되어 성장하는 야생으로부터 채취한 자연산의 약효와 질, 맛, 향이 더 월등하다는 점, 등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지라 위에 소개한 잡초들의 성장성이 농작물들의 성장성을 돕도록 유도하는 공생농업, 즉 다 함께 같이 살게 하는 농업이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들 잘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냥 놔둘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월이 흐르듯
인생도 흐를러라.
마음도 흐를러라.
즐거움도 흐를러라.
괴로움도 흐를러라.
사랑도 흐를러라.
미움도 흐를러라.
다~ 흐를러라.
매이지 않을러라.

매이면 아플러라.
아프면 힘들러라.
잡지도 앓을러라.
잡으면 쌓일러라.
쌓이면 무거울러라.
무거우면 힘들러라.
내비 뒤둘러라.
상책일러라.

— 김영의 뉘뚜리 —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김영** | 1937년생으로 30여 년간 섬유생산을 경영하였다. 자식들의 교육을 마치자마자 사업을 접고 세상살이 공부, 수련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자기감지 능력이 발달하여 KBS 미스터리 추적, MBC 기인열전 등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밭에서 붙잡은 비둘기 덕분에 색종이요법을 개발하여 약이 아닌 색종이로 질병을 다스리기도 하였다. 가전기기들에서 파생하는 유해전자파를 제어하는 방법과 오링테스트를 혼자 실시하는 기구를 개발하였다. 살아 움직이는 생기를 제대로 발공하려면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농사짓기를 시작하였으며 농작물들도 야생처럼 다양한 종류의 잡초들과 한데 뒤섞여 함께 더불어 성장함으로써 원시생태성인 인체생리성에 가장 적합한 질, 자연산의 것처럼 진부한 질이 제대로 확보된 먹을거리의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 혼종혼식 농사를 짓게 되었다.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참 먹을거리가 생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